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7호 [주제 제 25380호] 주제 105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행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성실히의료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전진적, 청국 가적, 전 사회적으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보통문기리고기 상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육관 설계에 철실히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기간 중요 대상건설장들에서 야간 지원돌격대활동에 참가해 온 대상은행 부원 김주영은 려명거리건설장에 달려나와 학생의 첫날부터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고 경제선동도 벌리면서 풍물과 불식향으로 도와주고 있다.

참모비단 공업국 로동자 류향미는 가정이 밟아온은 당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할 일념하고 블루는 견우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건설자들의 생활도 천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있다.

내외문화학위원회 정금월은 70종초교총살령집장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을

여러차례 찾아가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고 많은 원호물자를 보내줌으로써 그들의 전투적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선혁명의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블루는 삶의 자유를 세겨 갈 열의민에 고려 상업은행 부원 최광일은 대상건설현역에 청춘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대상사적지건설사업소로 로동자 김혜옥은 공사초기부터 천무장에 떠나나가 보호역, 물질적지원을 앞장서고 있으며 평년면도로 로동자 박성실은 대상건설현역에 청춘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신정순, 평양시 무역관리국 유통원 박량도 성의있는 지원으로 건설자들이 당시의 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두정에서 헌신적 헌신을 세우도록 고무하였다.

평양시 상업관리국 산하단위로 로동자 박금환, 조선장수부무역과 산하단위로 로동자 이철운은 가정에서 마련한 물자들을 가지고 만리마속도 창조열기로 뛰어난지는 전

로동당시대의 선정지리를 함께 일마세우는 심정으로 중앙운행부원 김운경, 국가과학원 생물공부분원 산하단위 무원 오명일은 맑은 혁명과업을 책임으로 수행하면서 많은 후방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날마다 새기고 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날마다 새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날마다 새기고 있다.

# 불패의 군사강국, 핵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희세의 선군령장



↑ 조선인민군 전선대련부대 장거리포병부대들을 사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5(2016)년 3월  
주제 101(2012)년 2월



새형의 대륙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5(2016)년 4월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5(2016)년 3월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5(2016)년 3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5(2016)년 6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원전성공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4(2015)년 5월



신형 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4(2015)년 2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3(2014)년 7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련합협동훈련을 조직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3(2014)년 11월



군종 다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4(2015)년 1월

#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명장들을 모신 민족은 최약의 역경속에서도 강철의 의지와 불懈의 힘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확신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미세먼지 날조선에 떠들어 사상 최대 규모의 《율지 프리미엄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걸 들어 있다. 이 군사연습이 군사작전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고 우리의 운명인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는 가장 악랄하고 꽁포한 핵 전쟁연습이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눈屎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땅에 굽이친 역사가 승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함께하는 미제와 남조선피리들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는 것을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진리로 새겨 주었다. 우리 누구나 푸른 물길을 밟아온 대로 굽어보며 배신든 듯 송정의 2001년 전투에서도 만리미호도 창조운동의 물길을 거세하게 지펴가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리미자 국력이며 군력을 맥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 도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습니다!》

이 말씀속에 천리에 안의 예지, 무비의 단련과 배짱, 투출한 맹군술로 우리의 군력을 세계의 상상권에 우뚝 서며 세워주시는 강철의 맹장의 전술위인상이 빛발치고 있다.

이 말초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종흡 7월대 청호강위용 통령성지대회가 열리었다.

무소 대회에 참석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종시하시고 이들이 오신 군대 중 운동을 및나에게 전투발전지지켜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 주체적 혁명 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

하나며 전군이 항일의 7천대, 전화의 균위부대가 철데 대 한 불멸의 대장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와 실상의 박동도 숨길도 하나가 될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면 대회참가자들...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나팔소리 우렁차게 울려가던 오종흡 7월대처럼, 당파 수령에 근위군기를 휘날리며 원우격열의 적전광포 누비던 용감한 균위부대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결만검의 성세를 쌓고 노도와 같이 밟려 나갈 열기가 장내에 차지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에 오종흡 7월대 청호강위용의 물길을 지펴 주신 2001년 되는 뜻 깊은 울해에 소집된 이 대회소식은 역사적인 당시 7차 대회 이후 인민군대의 첫 대회인 것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며 대회참가자들이 목청껏 떠는 단체의 환호성,

그것은 유풍처럼 청진과 함께 우뚝 서는 천군으로서의 영에 물개 속 빛내여나갈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들으셨다.

지휘관들의 손을 긴게 잡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균엄한 모습은 인민군장병들과 팔을 깊이 어깨를 걸으시고 그들을

진정한 전우, 동지로 묶어세워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위대한 승리의 넘ере로 빛내어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선언이었다.

수령님께서 걸으시였고 장군님께서 해치지였던 천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복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동행 걸고 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꿈꾸어나가도록 하시고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저들의 《무기만능론》을 사랑만능론, 도덕적 우월성으로 대승한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으로 흔들리 무장하도록 하신

우리 원수님이다.

인민군대 합부대 지휘관들의 빠른

조치로 청진전략지사 사령군을 조직해주시며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물길을 지펴주신 그이의 명도팀에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친부왕정신을 더욱 철저히 체득하게 되었다.

위험천만한 전투방법과 조연이자 우린 천운방법들을 끌어들이 으면서 민족군대의 전투로 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온갖 짐을 파고들고 버찌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군건설 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실화발전시키시며 인민군대를 정신력의 위력, 도덕의 위력으로 뼈 승을 펼쳐가는 사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차진 적인 의의를 부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군에 당시의 유플적명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의 군대, 당시의 군대로서의 혁명적본래를 변함없이 고수함에 대한 사상과 오종흡 7월대 청호강위용의 물길들이 인민군대를 선

정위용의 물길들이 청진전략전술과 영웅적전

정성진·김정일전략전술과 함께 한

승리로 통제권을 찾으으시에 자위의 보경과 함께 사나운 풍랑길을 헤치시며 전술을 훤했을 때 이기도 있는 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 인민

이 겪는 고생을 두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살피시며 걸으신 선군의 길, 국방력 강화의 길과 잇당은 로정이었다.

총대가 약하여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풍채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던 어제날의 식민지자국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벙집할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주체의 강성국으로

승리로 힘을 풂고 군대를 전투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장에 윤리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이 불리어온다.

경제건설과 학무역권설을 명진시킬 때 대한 우리 당의 선로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학무역권설을 강화 발전시키며 나파의 방위력을 절실히

다시면서 정제건설에 더 큰 임을 넣어온다.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더듬어나가도록 하실하고 보다 더 저절대

정의롭고 명랑한 군인으로서의 길을 헤치시며 이어나갈 것이다!

인민군대 합부대 지휘관들의 빠른

조치로 청진전략지사 사령군을 조직해주시며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물길을 지펴주신 그이의 명도팀에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친부왕정신을 더욱 철저히 체득하게 되었다.

그것은 학무역력을 더욱 억제해 풀어위고 그것을 중추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을 만들기 위해 청진전략지사의 최후승리를 더욱 확정짓는다는 원수님의 헌신이다.

인민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

는 애국충정의 구호를 깊이 심어주시고 김정일에 국주의를 실천으로 구현해나가는데서 인민군대가 언제나 일장에 서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코나큰 믿음과 기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철학미터에 거룩한 자욱을 세기시며 군인들을 수령의 유흥관찰전, 당정책을 위한 기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기적과 유행의 나래를 달아주신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

그것은 인민군인들이 천지개벽, 천도개벽, 황금제의 세례사를 펼쳐놓을수 있게 한 무한한 힘의 원천이었고 유훈의 힘력소았다.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천년을 책임지고 막판을 보증할수 있게 한 강조해나가는 인민군대의 정사관들의 무상과 군민협동운동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에 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말라지는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관을 비롯하여 수많은 세계적인 기관들을 일떠세운 것은 위대한 병장의 명도를 받는 혁명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귀중한 체력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낳고 중간한 열매를 맺는가를 확인하였다.

주체적 혁명 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며 그 군대의 위력으로로 《화성-10》 시험발사...

그 하나하나의 소식들은 우리 식주체무기화성을 알리고 백두산혁명장군은 그 무슨 경고나 사전종료고지도 놓아두지 않고 명도의 위력성이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장에 윤리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이 불리어온다.

경제건설과 학무역권설을 명진시킬 때 대한 우리 당의 선로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학무역권설을 강화 발전시키며 나파의 방위력을 절실히

다시면서 정제건설에 더 큰 임을 넣어온다.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더듬어나가도록 하실하고 보다 더 저절대 정의롭고 명랑한 군인으로서의 길을 헤치시며 이어나갈 것이다!

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

본사기자 김성남

## 우리의 현실에 맞는 주체무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발한 반양강유도무

기시험사격을 지도하시면

지난 2월 어느 날이었다.

사격을 시작할 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이 하달되자 반양강로케트들이 이 새 운동장을 거내 뛰어들었으며 연락 날이었다.

반양강로케트들의 비행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말 한 사람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이 하늘에 떠는 원수님의 명령이었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말 불만 한 사건이라고

하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하나의 주체무기로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 (시) 빛나는 강국의 세월

박정철

이 땅에 거연히 솟은 힘의 기념비 조선인민군 무장경비관 오늘도 아침복차림으로 훈대 높이 추어드린 백두령장 김정일장군 삼가 우러르면 전선길의 눈보라에 얼고 초도의 중uang에 젖은 천후복 그 아침복차림을 기발처럼 펼쳤 날리시며 오늘도 선군혁명의 폭풍을 부르시는가 철의 바다를 펼친 주체무기들 대륙간도로케트... 냉을 주고 피와 슬픔을 부어 안아올리신 천하무적의 군핵을 은빛총대에 재워안으신 선군령장 선군의 총대우에 민족의 운명을 염으시고 장군님 혜여오신 밤고통상의 깊 그 한생 초식이 되어 이 행성우에 떠난는 동방의 해강국

봉 쟁 거룩한 실상의 박동소리 박동소리 절대의 애국자의 신념의 메아리에 어제도 오늘도 폐일도

## (시) 나는 전승의 기념사진을 보고있다

주광일

장산이 빛나게 하게 『화성-10』시험발사에 성공한 그날

농군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웅변 모임 진행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평도를 시작하신 56돐에 즈음한 농군밀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웅변모임이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리령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농군밀군과, 평양시당의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도입에서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선군혁명평도로 반제반미대결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새기적기파와 변화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려하였다.

충북군농군평의회원회 책임강사, 립향출은 웅변『위대한 선군사상 만세!』에서 혁명은 총대의

의하여 개척되며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대체철학과 구대 이자

그대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방면초소와 철물, 오성

산과 초도 등 조국땅 땅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기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합물을 초발처럼 꽂고려 불어우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이 그대로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민족의 운운하는 김준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를 헌액해 봄 복수할 일념을 안고 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div

# 승리는 우리의 영원한 전통이며 참패는 친미역적파당의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내외원주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자주와 선군, 일심단결의 위력을으로 승리의 신화를 이어내온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전통이다.

그 영광의 뒤에 기우에는 이 때에 밀려들었던 정권의 맥장구를 밀어내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일축출발의 위기에서 구원한 1년간 8월의 대승리가 가장 깊은 사변으로 아로새져져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8월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흔적이 멎은 이후 우수히 닦쳐왔던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기의 최점정을 이루는 국부 위험한하고 침해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당시 폐쇄군부방해들이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지봉기」 사건을 통해 고국악도한 「제복심비전」 방송을 재개하고 빠른脚步들을 어지럽게 남펴다니 못해 우의 명도를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까지 한사하는 한에에는 도발에 날뛰며 정체를 걸었을수 없는 북방국면에도 물어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전선에서 대구포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던 것은 거의 때를 갈리하여 벌어진 천하무도한 도남은 미국과 폐쇄파당이 오래동안 버려온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친략과 압박의 짐을 헤어내고자 하는 흥을에서 출발한 폐쇄군부방해들이 전쟁행위였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침해하려는 악랄한 정치군사적 도발에서 우리 민족의 수원민족에 대한 친략과 압박을 헤어내고자 하는 흥을에서 출발한 폐쇄군부방해들이 전쟁행위였다.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에서 급하게 돌아가는 전쟁세계를 지켜보고 있던 그 시각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거래를 위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중대Decision을 내리면서 국제적전원을 이루어 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조국수호, 민족수호의 숭고한 사령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철제위인께서는 미

국과 폐쇄군부방해들의 군사적당장을 단순

에 일부 실무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농

민도경제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풀세로 뒤집어씌우며 말입니다 「복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악랄하게 겁고고 있다.

아무리 후안부지하고 좌우우를하는 것이 전무현대승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셨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승리이지만 강대한

의 위력과 지략으로 전쟁을 세우고자

제2의 조선전쟁에서 파멸적운명이 차

에 질것이 투파워 폐쇄당국들이 고위급

대회화당에 끌려나고 북남사이에 극히

인의 힘과 재빠르도록 기승을 부리며

전쟁의 난파도는 불거져처럼 끼쳐들고

국에 개무리처럼 순종하며 동족대결에

미쳐널리며 박근혜당이 아니면 말인가.

부남교워금에 차운 일남에서 헤어지

는 일남에서 헤어진 가족, 친척상

봉과 당국회당을 주동적으로 마련해주시며 무

대로 분수를 있어야 한다.

북남사이의 핵심을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걸심으로 가꾸어 북남관계의 전환적국면을 열

어나가려는 일남에서 헤어진 가족, 친척상

봉과 당국회당을 주동적으로 설사시키며 선

의의 아름을 거듭 배운 당시자는 과연 누구

이며 그 모든 진정과 기회를 익유하고 북남

합의를 베란해나온 장본인은 누누인가.

부남교워금에 차운 일남에서 헤어진 가족, 친척상

봉과 당국회당을 주동적으로 설사시키며 선

의의 아름을 거듭 배운 당시자는 과연 누구

이며 그 모든 진정과 기회를 익유하고 북남

합의를 베란해나온 장본인은 누누인가.

제2의 조선전쟁에서 파멸적운명이 차

에 질것이 투파워 폐쇄당국들이 고위급

대회화당에 끌려나고 북남사이에 극히

인의 힘과 재빠르도록 기승을 부리며

전쟁의 난파도는 불거져처럼 끼쳐들고

국에 개무리처럼 순종하며 동족대결에

미쳐널리며 박근혜당이 아니면 말인가.

당치않게도 그 무슨 「속도조절」은 봄

『10월 복도법』 설을 떠들어대며 북남관

개계선분위기에 차운 일남 우리

이 땅에 차운 일남 우리에게는 철학과

『제100』 문제를 익유하고 겁고고 있다.

이 시각에도 박근혜당은 「복도법」

니 뛰어난 개나발을 짓어대며 「제도

통일」의 힘을 이루어 보았다고 온갖

비행하고 주악한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어떤 계법으로써도 친구사마와 동

족대결에 환장하며 북남관계개선의 귀중

강도를 외시며 대결장으로 만들어 조선

반도에서 혁전의 힘으로 차운 일남 우

우리에게는 회색의 위인께 드리는 진심이

침침하고 예후와 함께 흑모의 힘으로 차운 일남 우

우리에게는 백두의 친총망장, 자기 거래와

민족을 그 누구보다 드겁게 사랑하시며

한 품. 바쳐 그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각

종복집전영을 풍만으로 벌여놓는다

못해 군부호전 꽁풀을 내물을 서해해 상경

개선일에에서 선물질까지 해내면서 정세

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킨 박근혜당에 대하

여 일이 일개라도 번역할 수 없을 것이다.

내외전쟁의 힘과 절차를 넘어서는 것은

제100(2016)년 8월 23일

평 양

세없이 주동이질을 하며 예론을 오도하고

있지만 알것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지지적인 국방력과 혁신적인

민족의 혁신적인 철학으로부터 나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고 통일번영의 새

길로를 시대를 주시적으로 열어나가기 위

한 것이 남조선이 위험을 느끼고 걱정

하거나 불안해 할 구석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지지적인 힘에 대비해는 것이며 이아말로

최고의 애국이고 애족이며 애민이다.

이 땅에서 우리 거래와 지혜를

제100(2016)년 8월 23일

평 양

#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입장을 지지하여

스위스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2017년 박두산위인청총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주재사상연구소 조카 조선일본군성 노장 강제

행 히어자문체제 대변인회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는 호소문은 대변인회와 6. 15 통일선언실현 호소문은 불립과 대결을 강요하

## 일본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서 실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라를 활하게 돌아다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NHK 등 일본언론들이 일본의 중국의『한국시보』가 일본의 교활성을 까닭에 놓는 글을 실었다.

글은 중국과 날조선사이에『싸드』배치 문제로 관계가 긴장될 때 일본이『싸드』배치계획을 토출시킨 것은 중국의 군사비를 높이는 문제를 겸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과 날조선피의들의 무분별한 군사

작방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속에 땅딸이 높아지는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실상치 않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일본본래의『싸드』

를 배치하는 경우 중요 대 미일남조선 사이의 대립국면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말았다. 동북아시아에서 나라는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마찰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싸드』배치가 결정되며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의 전략

적 운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게 될 것

이라고 강력히 반발해나섰다.

이 나라들은『싸드』배치의 명분으로 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위험』은 한갓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응조치들을 향해 있다.

결국 미국과 날조선피의들의『싸드』

배치 결정으로 하여 미국과 조선반도주

민족과 날조선사람의 모순과 대립은 더욱 확

명화되었다.

일본이 이런 복잡한 틈을 질소의 기회로 여기고 어부지리를 염려보려고

교하고 있다.

자기 품 지켜나가려는 우리 정당

당한 자원적 행동에 누구도 이리 풍자되

는 시비 할 아무리 한 군지도 없다.

우리를 걸고들며 횡설수설해대는 일

본반동들의 망언은 그야말로 한갓 재번

에 불과하다.

사실 일본이 지역정세 완화에 조금이

라도 관심이 있다면 울군 하나의 전쟁

을 치르고도 날을 술한 철학무력을 조

선반도 남쪽에 항시적으로 주둔시켜놓

고 우리를 자극하는 철학정연술을 미

친듯이 떨리고 있는 미국에 용당 경제의

눈길을 끌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미국의 악당들은 핵전략폭

격기 B-1B와 B-2A들이 어려대

나 패도에 전진배치되었다.

이것이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외신들이 전한데 의하면 우리의 중장

거리전략단도로에 테시힐발사당시 일본

을 철수하는 일에 대한 평가는 도발

할 실상이 같은 군사적 일의이라는 것

이 정체분석가들의 일치한 주장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를 걸고드는 일본의 속심은 어디에

있는가?

일본은 미국을 통해 업고 군사대국화

에 박차를 가하여 해외침략악상을 기어

이 실현해보려고 꿈을 하고 있다.

미국에 당발이 악장구를 치는 일본의

파렴치성은 오늘 국도에 달하고 있다.

일본국민의 언론들은 방위성의 철

장을 놓고 불과 2018년 후에 가서

배치된다고 하는 미국의『싸드』가 그전

에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은 지

금 도를 넘고 있다.

오늘의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이 대두

되며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의 정

신도덕 부족 문제로

제기되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관

물들은 청년들이 타락과 범죄

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조선

청년들의 숙고한 정신도덕적

모가 국제 사회에 시사해주는

의미는 자못 심오하다.

조선이야기로 끝없이 밝은 미

래를 가진 청춘의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언제인가 영국의 어느 한 신

문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살

인자』를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평균 1년간의 사

망자통계자료들을 분석한데

기초화된 결과에 있어서 원래는

서 커다란 차량으로 된다.

당수 행위에 대한 불리는 충

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

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통

지물에 대한 고결한 의지심, 아

름살짜동속에서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

으로 끝없이 더졌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제기된 문제로

제기되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관

물들은 청년들이 타락과 범죄

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조선

청년들의 숙고한 정신도덕적

모가 국제 사회에 시사해주는

의미는 자못 심오하다.

조선이야기로 끝없이 밝은 미

래를 가진 청춘의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언제인가 영국의 어느 한 신

문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살

인자』를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평균 1년간의 사

망자통계자료들을 분석한데

기초화된 결과에 있어서 원래는

서 커다란 차량으로 된다.

당수 행위에 대한 불리는 충

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

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통

지물에 대한 고결한 의지심, 아

름살짜동속에서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

으로 끝없이 더졌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제기된 문제로

제기되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관

물들은 청년들이 타락과 범죄

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조선

청년들의 숙고한 정신도덕적

모가 국제 사회에 시사해주는

의미는 자못 심오하다.

조선이야기로 끝없이 밝은 미

래를 가진 청춘의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언제인가 영국의 어느 한 신

문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살

인자』를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평균 1년간의 사

망자통계자료들을 분석한데

기초화된 결과에 있어서 원래는

서 커다란 차량으로 된다.

당수 행위에 대한 불리는 충

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

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통

지물에 대한 고결한 의지심, 아

름살짜동속에서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

으로 끝없이 더졌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제기된 문제로

제기되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관

물들은 청년들이 타락과 범죄

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조선

청년들의 숙고한 정신도덕적

모가 국제 사회에 시사해주는

의미는 자못 심오하다.

조선이야기로 끝없이 밝은 미

래를 가진 청춘의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언제인가 영국의 어느 한 신

문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살

인자』를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평균 1년간의 사

망자통계자료들을 분석한데

기초화된 결과에 있어서 원래는

서 커다란 차량으로 된다.

당수 행위에 대한 불리는 충

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

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통

지물에 대한 고결한 의지심, 아

름살짜동속에서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

으로 끝없이 더졌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제기된 문제로

제기되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관

물들은 청년들이 타락과 범죄

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조선

청년들의 숙고한 정신도덕적